

# 한국정치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정권재창출 위해서 필요하다

## 97' 대선과 한국정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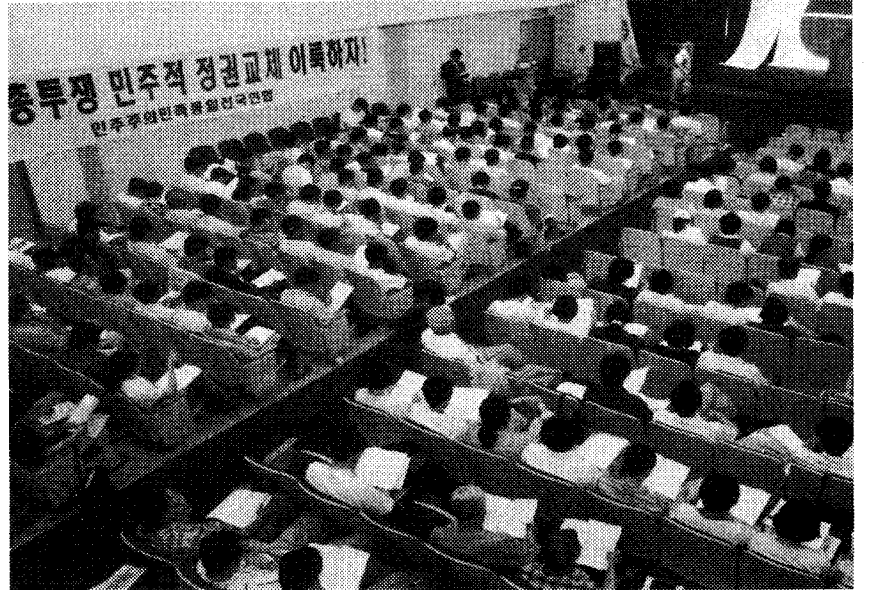
대통령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지난 해 말부터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더니 지금은 날이갈수록 판세를 달리고 있어 선부론 예측조차 하기 힘들다. 이런 혼란속에 주권자인 투표에 있어서 한번쯤은 생각해볼아야 할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논거들을 제시하려 한다. 총 4회에 걸친 대선관련 시리즈가 선거에 있어서 소신을 굳힐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 ① 정권교체는 과연 필요한가

글 쓰는 순서

- ① 정권교체는 과연 필요한가
- ② DJ로 정권교체 타당성?
- ③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정당
- ④ 97대선 경획인 설문조사

□정권교체 이래서 필요하다



## 국정은 정치 연습이 아니다

3김으로 새로운 정치 기대하기 어려워

김영중

〈신한국당 홍보국 간사〉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97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의 15대 대통령을 뽑는 절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미래,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다. 새 대통령은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1세기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19세기말을 훨씬 능가하는 변화의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냉전종식으로 전지구적 의미의 맹방은 사라진지 오래며, 경제중심주의가 국제사회의 흐름을 결정짓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한반도 주변의 복잡다기한 역학구조 속에 남북문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침체와중에 선진국의 경제, 후발국의 추격 등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후보가 이러한 시대적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인물인가 우선 '미움과 투쟁의 정치', '낡고 소모적인 한(恨)의 정치', '권력지상주의적 패권정치', '16년이나 경선 승복을 약속해놓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치', '이제 막 절음을 시작할 지자세를 죽이는 정치'에 급급해온 인물은 안될 것이다.

이제는 합리적·민주적이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도덕성있는 인물, 과거 잘못된 정치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인물, 지역·특정정치세력에 대한 편견없이 미래 지향적으로 국민을 통합시킬 인물,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제대로 갖춘 국가로 이끌 수 있는 경영능력을 지닌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당 이회창후보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 집권당의 최고 책임자를 맡아 탁월한 위기관리능력과 경륜

을 이미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았으며, 국민대통합의 정치와 21세기 선진대국 실현의 차원높은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여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회창후보는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성이 회복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회창후보는 완전 자유경쟁을 거쳐 집권당후보로 선출됨으로써 '원만소'적 눈가림방식으로 후보가 된 야당 후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3김시대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왜 3김 청산이 필요한 것인가. 국가의 중흥기와 민주화 과정에서 3김씨의 역할은 나름대로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때이다. 10년전에 입었던 작은 옷을 성년이 되어서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갑갑한가?

또한 3김시대의 산물이 무엇인가를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정치에 대한 불신,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지연과 학연으로 쪼갬 나라, 출세기, 눈치보기, 바른말 안하기, 시키는 대로 하기 등이 3김정치의 부산물이다. 크고 작은 권력이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국가와 당의 모든 전권을 한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의 정치적 생사여탈권을 오직 한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구성구석에서 창의력이 마비되고 있으며 오직 출세기에만 급급하게 된다. 정치는 죽어가고 소외 대상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것이 3김시대가 낳은 부정적 산물이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인 현시점에서 이상적인 후보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뿐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원화된 사회에서 카리스마적인 슈퍼맨 대통령은 필

요치 않다. 선거란 선택지상에서 가장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무의미한 경쟁으로 밤을 지새며 세상은 화성에 탐사선을 쏘아올렸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생활이 어려울수록 자신들이 정권잡기가 더 쉬워진다고 판단하고 국정이나 민생보다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의 야당에게 국정을 맡길수는 없다. 국정은 연습장소가 될 수 없으며 민생은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야당 총재들은 40년 정치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져왔는가?

우리는 김현철씨를 보면서 또한 아버지의 지역구를 고스란히 물려 받은 김대중총재의 아들 김홍일씨도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지역으로 쪼갬우고 계층으로 갈라져야 하는가. 골이 깊게 파인 이 지역 감정에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지금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그 더러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폭풍이 또 한차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백년의 선택이, 진실로 이 나라의 미래가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 이제는 이루어야 할 '세력교체'

보수화된 모든 정치에 변혁 필요

박진용

〈국민승리21 대변인실〉

### 1. 1당 집권의 역사와 그 폐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아닌 제대로 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시대 친일하던 이들과 그 세력들이 해방이후 반공-친미를 매개로 이승만 권력의 기반이 되면서 오히려 그들에 의해 할 일인사들이 온갖 수단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이승만 정권에서 박정호 군사정권으로, 박정호 군사정권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현정권에 이르기까지 자연사로 인해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정권교체 그 세력 그대로는 여전히 지배세력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현대사에서는 한번도 정권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자칫없는 집단에게 반성이 있을리 만무하고 반성이 없는 바에 발전을 바라기는 어렵다.

아예 1당 독재를 선언한 정치체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정권교체의 길은 열려있어야 하고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정치체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것이다.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과 아예 바뀌지 않는다고 믿는 것중에 무엇이 더 많은 정치발전과 사회발전을 가져올 것인가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2. 그러나, '민주적' 내용으로 채워지는 정권교체가 아니라면...

정권교체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지만 그 전제는 분명 기존의 세력이 다른 세력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름만 다른 정당으로 바뀌고 얼굴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기존의 정치흐름, 기왕의 사회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정권교체'가 아닌 기존 세력의 '정권재창출'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야당의 '정권교체'의 주장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다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야당이 여당보다 더욱 보수화를 꾀하고 있어 그들이 집권하면 민주적인 개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집권을 위한 어떤 수 없는 조치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아닌가? 또 집권 후에는 기껏 보수화를 위해 영입한 인물들을 내쫓아도 하겠다는 말인가. 무슨 정치도의가 그런가?

이미 야당은 여당을 넘어서는 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다.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사람이 바뀌는 정권교체일 뿐이다. '민주적' 내용으로 채워지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면 '수평적 정권재창출'에 다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 3. 3김청산이 아닌 보수정치권의 청산이 우선되어야

3김청산을 외치며 정권의 유지를 주장하는 야당,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야당.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공동의 이해 지반위에 서 있다. 그것은 정리하고 등을 주장하는 재벌의 정치적 보호자가 되려는 것과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보수정치의 기존 틀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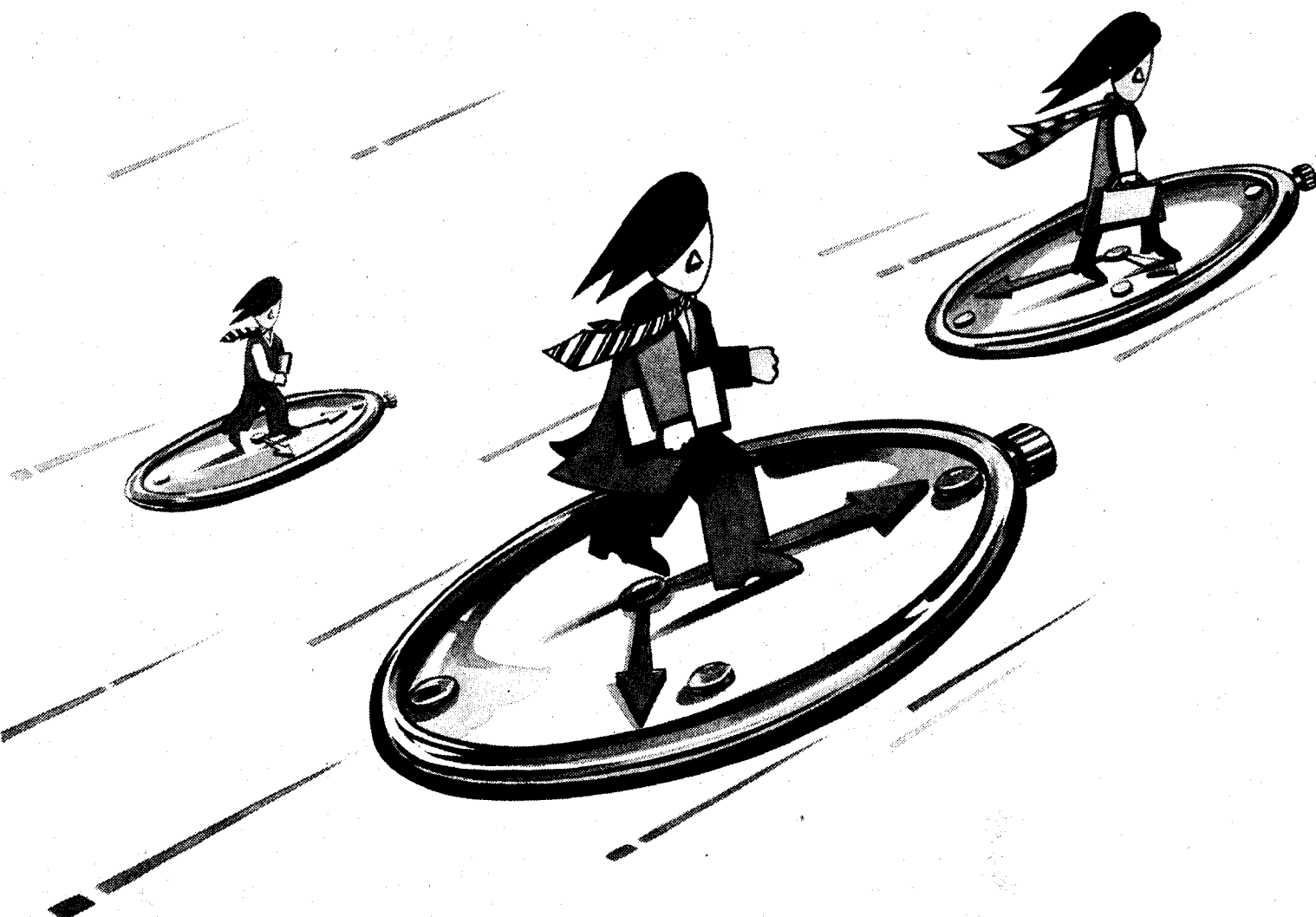
지난 노동법 날치기 파동때 보여준 여·야의 행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정치개혁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정권교체는 '민주적' 내용을 수반하지 않는 한 친재벌정체, 반민중적 정치의 연장이다.

또한 여당이 이야기 하는 3김청산은 얼굴만을 바꾸는 겉치장일뿐 현행체제의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다. 사람만 바뀌어 집권을 연장하려는 얄은 속셈으로 '3김청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당은 '세력교체'를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절대 주장할 수 없는 이 '세력교체'는 50년간 여·야의 역할 분담속에서 썩고 썩어온 보수정치세력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새로운 정치체력의 등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이러한 '진보세력'이 등장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세력이 '수평적'이지만 한 정권교체를 '민주적'인 것으로 만들것이다. 그리고 겉치장뿐인 '3김의 청산'이 아닌 새로운 회합을 탐지하는 세력의 등장과 함께 '보수정치의 청산'을 이루어 내야 하겠다.

KEUMKANG CHEMICAL CO., LTD. KOREA CHEMICAL CO., LTD. KEUMKANG CONSTRUCTION CO., LTD.



##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쉽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쉽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주) 금 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